

“성적 조작 고려고 학급수 감축 등 제재해야”

광주지역 교육단체들 촉구 책임자 수사·기속사 폐지도 학부모 찬조금 의혹도 제기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이 성적 상위권 학생을 특별관리하고 성적을 조작했다는 광주시교육청의 고려고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 해당 학교의 학급수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특히 성적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학교 운영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찬조금 의혹도 수사의뢰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20일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교육희망 네트워크,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고려고 재단은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에게 옹호하려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감사결과 특정 학생들에게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고려고의 총체적인 학사 운영의 부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단체들은 고려고측에도 “교육청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엄정 징계하고, 기속사 운영 중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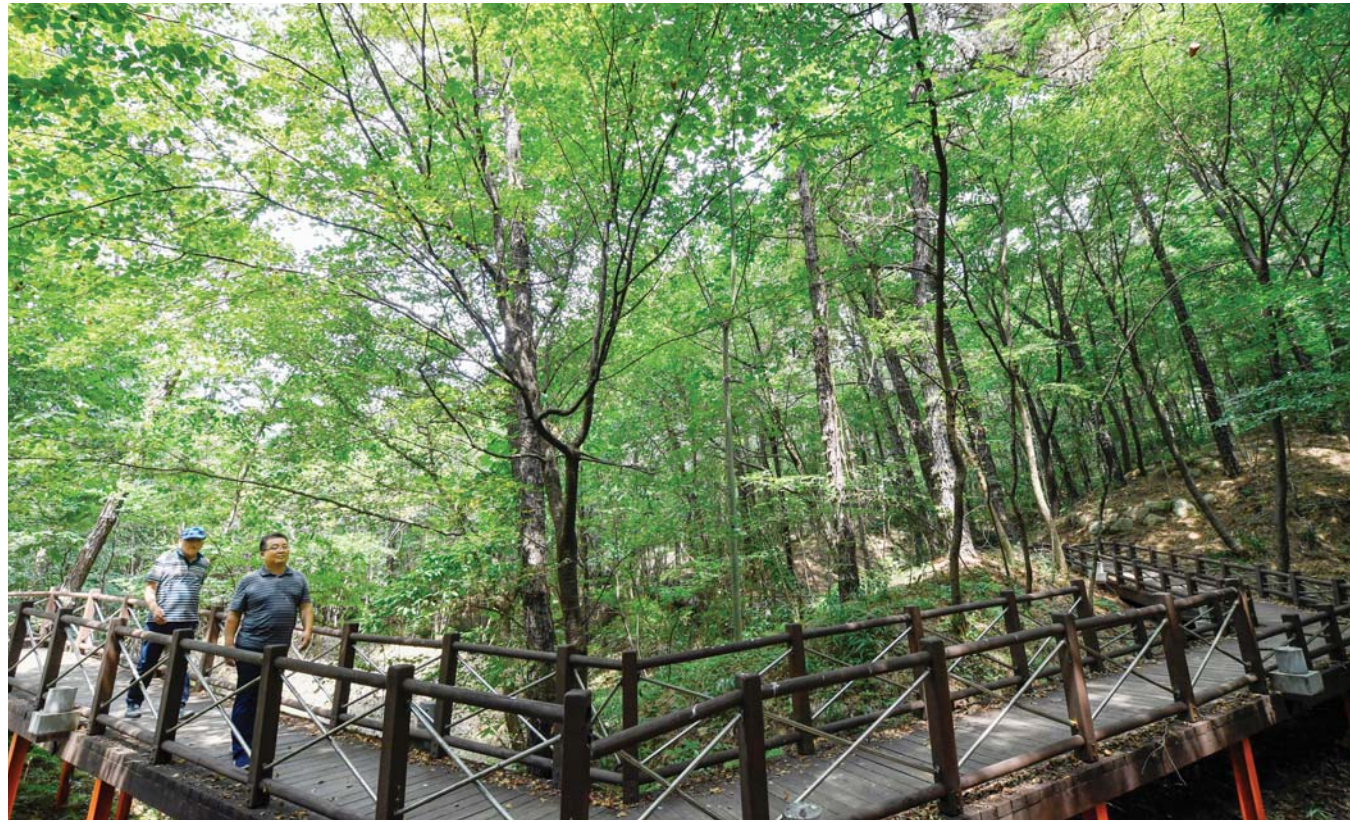
이와 함께 “장휘국 교육감은 2016년 모여고 성적조작, 2018년 모고고 시험문제 유출 등 고교 성적과 평가관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해왔다”면서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해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 즉각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려고는 ‘근조’라고 쓰인 현

수막을 건물에 걸고 학교를 임시 학원화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학교측은 일부 채점 실수를 상위권 학생 점수를 올리려는 의도인 것으로 몰아가고 설문조사와 감사 등 사실 확인 작업도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고려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시험문제 유출, 점수 조작, 우열반과 기속사 운영, 과목 선택 제한, 대입 학교장 추천 등에서 상위권 학생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교장(파면)·교감(해임) 등 6명 중징계, 교사 48명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심 산책로 가을바람 숲길
선선한 바람이 부는 등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20일 오후 광주 북구 중외공원 산책로를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1호 ‘매입형 유치원’ 북구 한스유치원 선정

교육청이 사업유치원을 사들인 뒤 설립하는 매입형 유치원 광주 첫 사례로 한스유치원이 선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북구 신원동 한스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해 2020년 3월 개원한다”고 밝혔다.

한스유치원은 8학급, 159명 규모다. 시교육청은 6~7월 공모에 참여한 13개 사업유치원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유치원 2곳을 선정해 심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한스유치원만을 공립 전환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치원 매입 금액은 교사(건물), 교지를 놓고 교육청과 유치원이 각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양측 평가액 평균값으로 결정한다. 한스유치원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립으로 전환해 개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나주학생운동 독립유공자 선정 이창신 선생 이명한 관장 부자 관계 인정 포상 전수 결정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故 이창신 선생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명한 나주학생운동운동관장(광주일보 2019년 8월 15일자 6면)에 대해 가족으로 인정하고 포상 전수를 결정했다.

20일 국가보훈처는 “이창신 선생과 이명한 관장의 부자(父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추가 제출됨에 따라 이 관장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하고 선친의 포상(대통령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 관장이 추가 제출한 이창신 선생의 나주공립보통학교(현 나주초) 학적부와 선생이 학생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적힌 족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관장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15일 제74주년 광복절 때 이창신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선생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던 아들 이 관장에 대해서는 서류 부족으로 인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이 관장은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조만간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이 관장을 방문해 포상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가로수 잎 갹아먹는 해충 美 흰불나방 발견

광주 서구 긴급방제 나서

광주 도심 가로수(활엽수)를 중심으로 해충인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광주시 서구가 긴급 방제에 나섰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최근 마북동 도로변 가로수에 송충이와 비슷한 벌레가 잎을 먹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조사한 결과 미국흰불나방 유충으로 확인됐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한마리가 100~150cm의 잎을 갹아먹는 등 먹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수십마리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발생한 나무는 나뭇잎의 잎맥만 앙상하게 남고, 줄기까지



시들해지는 현상을 보인다.

서구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방제작업을 진행해 1차 방제를 완료했으며, 28일까지 2차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6 해질 19:15 달뜨기 22:26 달지기 10:47

우산 챙기세요

흐리고 오후부터 비 내리는 곳 있겠다.

광주	차차흐려져비	24/30	보성	차차흐려져비	23/29
목포	차차흐려져비	24/29	순천	차차흐려져비	25/30
여수	차차흐려져비	25/29	영광	차차흐려져비	24/30
나주	차차흐려져비	24/30	진도	차차흐려져비	24/29
완도	차차흐려져비	24/29	전주	차차흐려져비	24/30
구례	차차흐려져비	24/30	군산	차차흐려져비	24/29
강진	차차흐려져비	24/30	남원	차차흐려져비	23/29
해남	차차흐려져비	24/30	축산도	차차흐려져비	23/28
장성	차차흐려져비	23/30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동~남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0.5~1.0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동~남동	1.0~2.0	남동~남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남)	동~남동	1.0~2.0	남동~남	1.0~2.0

◇ 생활지수

위험	☔
식중독	🦠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10:41 22:53	05:27 17:49
여수	06:00 18:07	12:16 --:--

◇ 주간 날씨

22(목)	23(금)	24(토)	25(일)	26(월)	27(화)	28(수)
☁️	☁️	☁️	☁️	☁️	☁️	☁️
24/31	23/31	22/30	22/30	22/30	22/30	22/30

코레일 오늘부터 호남선 추석열차 예매

코레일이 호남선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를 21일부터 시작한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21일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전국 주요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은 고객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의 예매 시작 시각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겼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온라인 예매는 변동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예매 대상은 9월 11~15일 K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 열차 승차권이다.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가 허용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다. 예매 기간 역 내 자동발매기로는 명절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다.

수서발 고속철(SRT)은 22~23일 예매를 진행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시설 사망 장애인 절반은 무연고자

복지부 유류금품 실태조사

광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 중 절반이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광주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26명으로, 이 중 11명(42.5%)이 무연고자였

다. 전남은 전체 사망자 69명 중 20명(29%)이 무연고자였다.

전국적으로는 사망자 1222명 중 34.8%에 해당하는 425명이 무연고자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